

# 석림에 정착한 석씨 왕가에 붓다 탄생

##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9)

석씨(釋氏)가 생긴 유래

과거에 울마(또는 의마라고도 한다. <잡아함경>에서는 고마라고 했는데, 방언 때문에 생긴 차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라는 왕이 있었다. 왕에게는 본처로부터 얻은 한 명의 아들과 둘째부인으로부터 얻은 네 명의 서자가 있었다.

본처로부터 얻은 장생이라는 아들은 완고하고 경박하며, 또 누추하고 못생겼기에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고, 네 명의 서자들은 모두가 총명하고 뛰어난 무용이 있었으며, 큰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 하여 본처인 왕비는 늘 걱정이 많았다. 어느 날, 왕비가 격정스러운 마음으로 왕에게 말했다.

“네 명의 서자들은 너무 뛰어나고 제 아들이 그에 못 미치니, 만약 내 아들 장생이 왕위를 이어받더라도 서자들이 반드시 그 자리를 빼앗을 것입니다. 왕께서 네 아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왕이 놀라며 말했다.

“네 명의 아들이 모두 어질고 효성스러워 허물이 없거늘, 그런 아이들을 어찌서 내쫓으라고 하는 것이요?”

왕비가 말했다.

“이렇게 제 마음이 애가 타는 것은 사실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서자들은 영특하고 무에도 뛰어나니 백성들이 각각 그들을 따를 것입니다. 훗날 그들이 각각의 세력을 키운다면 당파를 세우고 서로 왕의 자리를 다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아침에 왕이 바뀌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되면 이 큰 나라의 왕위는 불안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 나라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결국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 무너질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니 왕께서 이 나라를 걱정하신다면 먼저 저의 청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왕은 며칠동안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을 지었다.

“당신의 말이 옳소.”

그리고 왕은 곧 네 명의 서자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너희들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 너희들의 그 뛰어난이 너희들 자신을 위협하게 할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삶이 위협해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다. 너희는 각각 속히 이 나라를 떠나도록 해라. 그리고 각자 살아남도록 해라. 다시는 이 나라를 기웃거리다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네 명의 서자들은 아버지의 명이 약속했으나 최명을 받들어 이내 행장을 꾸리고 떠날 준비를 했다. 그들 어머니와 동생 자매가 함께 가기를 청하였고, 이때 여러 역사(力士)들과 많은 백성들도 가까이 함께 따라가기를 청했다. 그러자 왕이 그 모두를 허락했다.

설산의 변두리에 이르러 직수림(直樹林)에 머무르면서 어머니는 네 명의 왕자들과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다. 몇 년 안 되어서 그들의 덕망이 널리 퍼져 많은 백성이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귀의하는 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마침내 서자들과 그의 어머니는 강대한 나라와 백성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 해가 지나 왕은 내쫓은 네 아들이 보고 싶어 편지를 보내어 불렀지만, 아들들은 모두 사양하며 돌아오지 않았다. 왕은 탄식했다.

“내 아들들이 모두 혼자 힘으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때 왕은 그 부족의 성씨를 ‘석’이라 불렀

한 천자가 보살에게 물었다.

“구경 보살께서는 어느 성씨의 집안으로 내려가시겠습니까?”

구경보살이 대답했다.

“예순 가지 덕을 지닌 성씨라면 내 장차 거기로 내려가리라.”

석씨 집안만이 오랫동안 덕의 근본을 심었으며, 가유라위국 사람들은 대소가 화목하고 상하가 서로 받들고 있었다. 또 나라가 부유하고 화목하여 일승(一乘)을 간절하게 우러랐다. 정반왕은 성품과 행실이 어질고, 성이 구담씨인 그 부인도 온화하고 어질며 충성스럽고 착하여 몸과 입과 뜻을 수호하였으며, 이미 5백 세상 동안 보살의



삽화 · 강병호

다.<(잡아함경)에서는 “직수림을 석림(釋林)이라고도 하였으므로, 이 숲으로 인하여 성(姓)을 삼았다”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네 명의 서자들이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단정하다는 소문을 왕이 듣고 말하기를 ‘이야말로 참된 석자(釋子)로다’고 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렇게 석씨라는 종족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시조는 넷째 니루왕이다. 이 니루왕이 오두라를 낳았고, 오두라는 가유라위국의 왕이 되어서 구두라를 낳았으며, 구두라 왕은 시휴라를 낳았다. 시휴라 왕은 또 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장자가 정반왕이다.

구경보살이 도솔전에 있을 때였다. 천인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을 했다.

“구경보살을 어느 성씨의 혈통으로 태어나게 할까?”

어머니가 되었다.

어느 날 왕후가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데 흰 코끼리를 타고 해의 정기를 머리 위에 받치고 태안으로 들어갔다. 왕후는 몸과 마음이 안락하여 마치 깊은 선정에 든 것 같았다. 열 달이 지난 4월 8일 새벽이 될 무렵 왕후는 인비수 아래를 거닐고 있었다. 3천국도가 여섯 종류로 뒤집혀 흔들리고 남방 주작의 제2성(星)이 떨어지자 나무가 가지를 굽혀 왕후 앞에 내려오니 왕후는 나뭇가지를 잡았다. 그러자 제천이 꽃을 흩뿌리는데 오른쪽 옆구리로 태자가 태어나니 키가 1장 6척이었다. 이내 일곱 겹을 걸자 보배 꽃이 발을 받들었는데, 손을 들고 멈춰 서서 말하였다.

“천상과 천하에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동국대역경원 간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⑨



## 나부터 닦아야

바닷가에서 온 돌

오늘도 나를 점검한다. “아침에 깨어나 도량(내 마음) 청소는 했나요? 지난밤 하얗게 내린 눈(꿈)은 쏟아 내었나요? 도량 곳곳에 놓여있는(망상) 물건들은 다 제 자리에 두었는지요? 쓸기만 하고 닦지는 않았는지요? 양치하고(구입을 참회하고) 세수하여(모습이 깨끗하여) 기분이 상쾌해졌나요? 옷매무새는 단정하게(단정한 몸매) 입었나요?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반가운 얼굴로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아침에 일어나 먼저 도량청소(내 마음 청소)를 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잘 살기를 서원함이며 그것이 곧 작고도 큰 수행이라. 내 마음의 도량을 늘 살펴,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고 저주하는 마음 모두 소멸되어 있을 때 비로소 나와 나의 주변 모두 행복하리라.

물을 보며 물을 배운다. 물은 차별이 없어 누구에게나 같음을 풀어주고, 어떤 더러움도 다 씻어준다. 맑은 가로등을 보면 나도 가로등이고 싶다. 밝음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밝게 비춰져 어둠을 지우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니 나도 그런 삶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먼저 “미안 합니다”고 용서를 구하고,

### 각자 본래 자리가 행복한 자리

### 부처님 알게 된 인연 늘 감사

부끄러움을 고백하여 잘못을 참회하며 “사랑합니다”라는 말로서 미움이 사라지게하며,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리움 되게 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은혜로운 스승이 되게 하며, 힘든 일은 내가 먼저 하겠다는 생각으로 봉사하며, 내 모습을 내가 스스로 바꾸고 가꾸어 보살의 행을 익히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나는 얼마 전에 생각 없이 한 행동을 후회한 일이 있다. 막내 가족과 제주도 4박 5일 여행을 했었다. 우도에 갔을 때 해변의 하얀 모래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 모래 속에는 공기돌만한 예쁜 돌들이 있었다. 너무 예뻐서 손주들에게 주고 싶은 욕심이 들어 10개 정도 집으로 가져왔다. 그런데 지금 그 돌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런 글을 적어보았다(어쩌면 돌들에게 미안하다는 나의 마음이기도 하다)

“우도에서 가져온 돌들에게. 바닷가에서 주워온 아니 가져온 하이안 돌들을 보고 있노라니 파도소리 철썩이는 바다가 그리울 것 같다. 어쩌면 좋으니까 너희를 이 먼 곳까지 데려왔으니 어쩌면 좋으니까 지금 바다가 그리울 너희들! 미안하고 또 미안하구나. 그대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것. 내가 잘못 했구나. 나 혼자 바다가 아닌 집에 두고 본다는 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게 되었는데. 비록 사람들의 발길에 밟히고 부서져도 너희는 그 바다가 좋을 텐데 말이다. 가까우면 다시 데려다 주고

싶다. 이전 무엇이든 탐내지 말아야겠다.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도 제자리에 그대로 두어야겠다. 내가 우리 집에서 누리고 살듯이, 모든 유정무정들이 각자 본래 자기의 자리가 행복 할 터이니. 보이는 모든 것을 귀하게 보는 마음과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보살의 삶이기를 서원한다.”

### 내 삶의 행복

신심이 돈독한 불교 집안의 부모를 만났음이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스승님을 만났음이며, 좋은 도반을 만났음이며, 착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감이 내게 가장 큰 행운이며 행복이라 믿고 있다.

나의 빈약한 지혜에 햇빛 같은 진리의 가르침이 온 몸 가득히 담을 수 있음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기에 오래 전부터 새벽이면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가끔은 내가 부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를 생각해본다. 지금도 잘 할 일보다 잘못된 일들이 더 많은데, 만약 내가 부처님을 믿지 않았다면 더 많은 실수와 잘못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 이 얼마나 엄청난 행운인가. 내가 나를 사랑함도 바로 이런 까닭인 것이다.

아버지가 한약방을 하셨다. 언제나 보약의 환을 짓거나 경육고를 지을 때에도 그 당시 큰스님들께 먼저 공양 올리는 일상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었으니, 부처님 품속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아버지로 인한 인연으로 전 종정인신 고암 큰스님 과 경봉 스님, 윤희 스님 수산 스님, 청담 스님, 일타 스님, 범정 스님 등 많은 스님들을 쉽게 뵈 수 있었다. 불교청년회에 가입했고, 각종 수련대회에도 불교 행사에는 빠짐없이 동참하는 열정도 가졌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린 스님들의 보살핌으로 연꽃모임이란 모임도 만들고 부부 함께 초파일 등을 달기 위해 해인사 다니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어제나 밤새워 함께 갈 사람들의 밤이며 찬을 만들고, 부처님 회상에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그 기쁨이 바로 내게 더욱 굳건한 신심이 되어준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나들이의 성공이 더 큰 원력으로 이어지곤 하였기에 나는 너무나 행복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야 누구나 있는 일, 그일 조차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럴 때마다 인연의 충실함을 잊지 않았기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결과가 되곤 했다. 조상이 있어 내가 있음이며 스승님이 있어 내 불법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것이니, 어찌 감사할 일이 아니며, 내가 있어 내 가족 있음에 나 또한 함부로 살 수 없음이니 세상의 묘한 인연 관계 오늘도 그로 인한 숙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사랑도 미움도 형체는 없지만 작은 이 가슴은 그로 인해 웃고 또 울게 됨을 알기에 나로 인한 눈물을 남에게는 흘리지 않게 해야 함을 다짐하니 내가 부처님을 믿었음이 얼마나 절한 일인가. 거룩한 부처님! 나를 잊지 않고 돌아보셨나이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불광산사 범종 (중량 6700원)

#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특성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as.com / E-MAIL : sungjongsas@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함곡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 112호 · 대한민국 명장)

이 사람아!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흔들림 없이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천재주 부러워할 만이 아닌 걸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워겠습니다!

#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보상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든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상 / 02)2004-8216**

☎ 053-01-289062 (주)현대불교신문사